동국대, 문화재 · 음악 특화로 '제2건학' 나선다

건학위원회 3월 16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서울캠에 한국음악학과 신설
정원 15명…내년도부터 입학
문화재학과도 첫 입학생 받아
서울지역 유일한 문화재학과
"실용적 불교 인재 배출 노력"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3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설된 문화재학과와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는 한국음악학과의 운영 방향과 설립 의미에 대해 밝혔다.

"한국음악이 곧 불교 음악이지만, 불자는 매우 적습니다. 한국음악학과가 설립되면 이제 우리 식구가 될 불교 음악 전문가들을 양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박범훈 한국음악학과 석좌교수)

"한국 문화재 중 70%가 불교문화재이지만, 이를 다루는 대학은 모두 타 대학들이었습니다. 불교에 대한 이해가 높은 종립대학에서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연구 · 교육할 수 있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임영애 문화재학과 교수)

조계종립 동국대(총장 윤성이)가 한국음악과 문화재 관련 학과를 신설 · 운영하고 해당 분야 교육 · 연구의 특화에 나선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3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화재학과와 한국음악과의 운영 방향과 의미에 대해 발표했다.

동국대는 올해부터 문화재학과 신설하고 첫 입학생을 받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2월 8일 열린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 제342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설립이 결정된 한국음악학과는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한국음악학과와 문화재학과 모두 전통문화 보존 · 계승과 실용적 불교 인재 양성이라는 큰 목표를 갖고 설립됐다. 이는 동국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건학이념 구현 사업과도 맞닿는다.

불교 음악 인재 양성 기대 높아

2023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한국음악학과는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3월까지 입학전형위원회를 운영하고 이후에는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술대학에 설치되는 한국음악학과의 입학 정원은 15명이며 기악(소금 · 대금 · 피리 · 가야금 · 해금 · 거문고), 성악(판소리 · 민요 · 가곡 · 서도창 · 범패 · 화청), 작곡 · 지휘 전공으로 운영된다.

한국음악학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불교 음악 인재를 배출이 가능해져 불교 음악포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범훈 동국대 한국음악학과 석좌교수는 "한국음악을 선도할 인재들이 필요했고, 1995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한국음악학과가 만들어졌으나 지역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다. 이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새로 만들어질 서울 한국음악학과는 우수한 인재를 모집해 세계적인 스타 음악가를 배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전 방향으로는 조계종 불교음악원과 함께하는 현장 공연 교육을 제시했다. 박 석좌교수는 "음악인은 공연이 제일 중요하다. 교실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한계가 있다"면서 "조계종 불교음악원을 통한 공연 실습 등 현장 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겠다. 전국 사찰이 있기 때문에 공연할 수 있는 무대는 많은 것이 최대 이점"이라고 설명했다.

10:1 경쟁률…문화재학과 성공 안착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문화재학과는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정원 15명인 문화재학과는 운영 첫 해임에도 수시 10대 1, 정시 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학내에서도 학생들의 복수전공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문화재학과는 문화재 현장에서 활용되는 필수적인 지식들을 교육한다. 임영애 문화재학과 교수에 따르면 문화재학과에서는 △불교 고고학 △보존과학 △미술사 등을 주요 전공으로 다룬다.

불교 고고학의 경우 절터를 발굴하고 발굴지와 유구들을 읽어내는 능력을 배양하며, 보존과학은 발굴 유물들을 보존 · 관리하는 기술이다. 잘 보존처리된 문화재들을 연구 · 분석하기 위해서는 미술사 전반에 걸친 지식이 필요하다. 이 같은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서 실무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게 임 교수의 설명이다.

임 교수는 "전국에는 문화재학과가 몇몇 있지만, 서울에 있는 문화재학과는 동국대가 유일하다"며 "취업 전망도 밝은 편이다. 정부에서는 인구 3만 9000명 당 1개의 미술관, 박물관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만큼 관련 수요가 많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원에는 40년 전통으로 미술사학과가 있기 때문에 앞선 선배들을 멘토-멘티로 연계하면 학과는 꾸준히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학과 신설 관련해 운영 정원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학교 법인과 건학위원회 스님들의 관심 덕분에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면서 "문화재학과는 높은 경쟁률로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했고, 한국음악학과는 비상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전통 계승과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두 학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께서는 불교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강조하셨다"면서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가 이론적 인재를 양성했다면 한국음악학과와 문화재학과는 실용적인 불교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평등한끼' 단식으로 차별금지법 촉구"

사노위, 3월 15일 기도회서 차별 · 혐오 끊는 릴레이 단식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하루 한 끼 단식을 하는 '평등한끼' 릴레이 단식행동에 동참했다.

사노위는 3월 1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봉행했다.

'평등한끼'는 사노위가 그동안 동참해 왔던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에 이어 하루 한끼 단식으로 차별을 끊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힘을 보태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들은 하루한끼 단식을 통한 공동행동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 새로운 정부 출범 전 차별금지법을 시민의 힘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기도회에 앞서 사노위 부위원장 혜문 스님은 "부처님은 모든 이들이 평등하기에 차별이 없다고 하셨다"면서 "차별과 혐오를 끊자는 의지를 담아 한 끼를 굶고 평등으로 한 끼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기도회 이후 스님들은 '평등의 약속을 잇는 차별금지법 제정' '모두를 위한 내일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등의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국회 앞을 돌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발원했다. 사노위는 종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모든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가 만들어 지길 바라며 정기 기도회와 연대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는 단체와 개인 모두 참여할 수 있다. 4월 8일까지 원하는 날을 골라 각자의 자리에서 한 끼를 단식하고 SNS에 이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시에 매일 11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국회 정문 앞에서 다양한 단체들의 릴레이 단식행동도 이어진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15일 기도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 상월결사,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아름다운동행 · 현대불교신문 공동캠페인

8월 12일까지 긴급 모금
"피난민 상처에 자비온정"

한국불교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난민 구호를 위해 긴급모연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조계종(총무원장 원행)과 상월결사(회주 자승)가 주최하고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과 현대불교신문이 주관한다.

2월 24일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침공으로 주요시설들이 파괴되고 1000명 이상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 1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전쟁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민간인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난민 지원이 긴급한 상황이다.

이에 조계종은 전쟁 중단과 우크라이나 구호를 위한 호소문을 불교계에서 처음 발표한 상월결사와 함께 모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름다운동행과 현대불교신문이 주관하는 이번 모금 캠페인은 8월 12일까지 진행된다. 모금액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한 간접 지원과 인접국가 NGO 및 불교 단체를 통한 직접 지원이 병행된다.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하루빨리 재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모금동참 링크(https://url.kr/apycvg) 홈페이지(www.dreaminus.org) 참조. 02)737-9595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산불피해 복구에 자비온정 이어져

조계사 3천 · 월정사 3천만 원
해인사 2천 · 불국사 5천만 원
3월18일 울진구청서 일괄전달

경북울진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불교계 온정이 속속 답지하고 있다. 조계사와 해인사, 불국사 등 전국 본사들이 잇따라 울진지역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을 전달했다. 조계종은 3월 18일 울진구청에 복구기금을 전달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3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아름다운동행(대표이사 원행)을 통해 산불지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기금은 조계사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연한 기금으로 의미를 더했다. 도반 HC도 같은 날 1천만원을 전달했다.

지현 스님은 "울진지역 산불 피해상황을 보고 신도분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보탰다"며 "사찰 피해는 덜하지만, 민가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지원이 시급할 것으로 보고 급히 기금을 전달키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김의정 조계사 신도회장 등 신도회 임원이 배석했다.

해인사(주지 현응)도 경북울진 산불 피해 기금으로 2000만원을 쾌척했다. 해인사 총무국장 진각 스님은 "합천 산불이 크게 나면서 우려가 컸으나 다행히 거리가 있어 피해는 없었다"며 "최근 경북 울진 지역의 피해가 심각해 해당 지역의 피해복구 및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금을 전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불국사(주지 종우)와 무진선원(선원장 도선)도 각 5000만원을 전달했다. 경북울진 지역 뿐 아니라 강원지역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이다. 산불피해 우려가 심각했던 울진 불영사 주지 일운 스님도 참석해 종단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3월 17일에는 월정사(주지 정념)가 산불 피해 지원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원행 스님은 "언제나 산불에 주의하고 사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소중한 기금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3월 18일 총무부장 삼혜 스님과 사회부장 원경 스님,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 등을 중심으로 지원단을 구성해 울진구청에 지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송지희 기자 · 임은호 기자

정찬주 장편소설



값 15,000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 http://dgpress.dongguk.edu
전화 02.2264.4714 팩스 02.2268.7851

지금 이 순간, 다시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굿바이 붓다

웰컴 니르바나

"코로나19 팬데믹, 인간의 이기심이 불러온 인류의 불행"
"혼란과 두려움!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 살아야 하나?"





열반을 앞둔 부처님의 간곡한 가르침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소설 〈굿바이 붓다〉는 부처님이 웨살리에서 비구들을 불러놓고 당신의 열반을 선언한 뒤부터 꾸쉬나가라 변두리에 있는 살라나무 숲 속에서 눈을 감으실 때까지 시봉하는 제자 아난다와 주고받은 세 달 동안의 이야기가 주요한 내용이다.

"아난다여, 너는 여래의 열반을 한탄하거나 슬퍼해서는 안 되느니라. 너에게 항상 말하지 않았더냐. 아무리 사랑하고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침내는 헤어져야 할 때가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것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여래가 없더라도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힘써 정진하여 번뇌 없는 경지에 빨리 도달함이 좋으리라."

"끝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감화(感化)다!"

– 작가 정찬주 –